

자본시장을 활용한 마이크로파이낸스(Microfinance)의 발전 가능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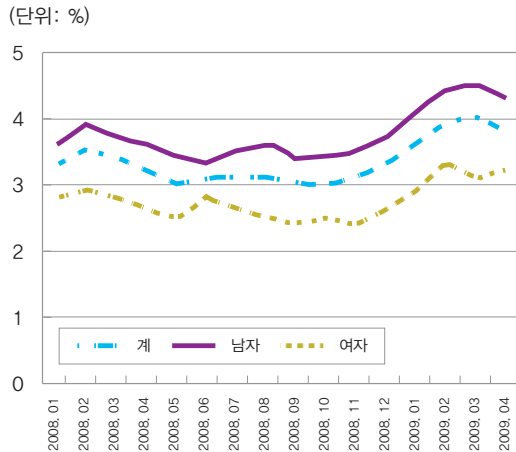
- 최근 세계 금융위기로 국내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실업률과 은행대출금 연체율 및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서민 경제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
- 전세계적으로 저소득 빈곤층 및 금융소외계층 대상의 마이크로파이낸스(Microfinance)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, 국내에서는 NGO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활동이 전개 중임
- 국내 서민 경제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신용불량자 및 금융소외계층의 추가적인 양산을 막기 위해 자본시장을 활용한 마이크로파이낸스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임

- 최근 세계 금융위기로 국내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실업률과 은행대출금 연체율 및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서민 경제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
 - 실업률은 2009년 4월말 현재 3.8%로서 전월에 비해서는 다소 낮아졌지만, 전년동기에 비해 0.6%p 증가하였음
 - 이를 성별로 구분해 보면, 남성은 전년에 비해 0.7%p 증가한 4.3%, 여성은 0.6%p 증가한 3.2%를 기록함
 - 은행대출금 연체율은 기업 대출과 신용카드 대출을 중심으로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함
 - 가계 대출의 경우 전년에 비해 0.1%p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, 기업 대출은 1.2%p, 신용카드 대출은 0.9%p 증가함
 - 한편 국내 소득분배지표 추이를 살펴보면, IMF 금융위기 직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서민 경제가 크게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
 - 소득불균형지표인 지니계수는 IMF 금융위기 직후인 1999년에 비해 더욱 악화되어 2008년말 현재 시장소득 기준 0.325를 나타내었고, 5분위배율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6배 이상 격차가 벌어짐
 - 또한 상대적 빈곤율도 악화되어 시장소득 기준으로 1999년 13.1%에서 2008년말 현재 15.4%로 증가하였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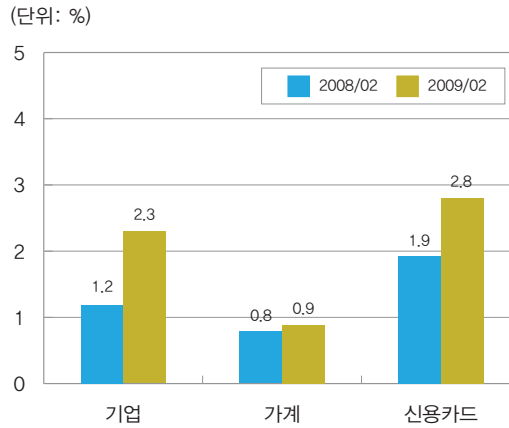
실업률 추이 및 은행대출금 연체율 현황

실업률 추이



자료: 통계청, 한국은행

은행대출금 연체율



국내 소득분배지표 추이

소득분배지표		1999	2000	2001	2002	2003	2004	2005	2006	2007	2008
시장소득 (%)	지니계수	0.303	0.286	0.299	0.298	0.295	0.301	0.304	0.313	0.324	0.325
	5분위배율	5.13	4.58	4.92	4.92	5.06	5.23	5.41	5.72	6.12	6.20
	상대적 빈곤율(%)	13.1	10.8	11.8	11.4	12.8	13.7	14.1	14.7	15.6	15.4
가처분소득 (%)	지니계수	0.294	0.272	0.286	0.284	0.282	0.285	0.286	0.292	0.300	0.298
	5분위배율	4.88	4.19	4.51	4.50	4.56	4.64	4.73	4.85	5.08	5.00
	상대적 빈곤율(%)	12.4	9.8	10.6	10.3	11.3	12.0	12.3	12.5	13.0	12.6

- 주: 1) 시장소득 = 근로소득 + 사업소득 + 재산소득 + 사적 이전소득
 2) 가처분소득 = 시장소득 + 공적 이전소득 - 공적 비소비지출
 3) 지니계수 =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수로서, 0~1의 값을 가지고 그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
 4) 5분위배율 = 소득상위 20%의 소득 / 소득하위 20%의 소득
 5) 상대적 빈곤율 = 소득이 중위소득의 50% 미만인 계층이 차지하는 비율

자료: 통계청, 한국은행

□ 전세계적으로 저소득 빈곤층 및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마이크로파이낸스(Microfinance)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

— 마이크로파이낸스란 빈곤층을 대상으로 무담보 소액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서비스회사를 말하는데, 1976년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(Grameen Bank)을 시작으로 확산됨

- 일반적으로 마이크로파이낸스에 의한 대출은 상업은행에 비해 부도확률이 낮고, 일부는 수익성도 높게 나타나 빈곤층 대상의 대출업무가 자선사업을 넘어 상업적으로도 우수한 사업모델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음¹⁾

1) 한국금융연구원, 2009, 마이크로파이낸스(Microfinance) 투자의 확대와 과제, 해외상품 및 전략 소개(제09-07호).



-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마이크로파이낸스는 ‘신나는 조합’, ‘사회연대은행’, ‘아름다운 재단’ 등이 있으며, 이들 모두 빈곤층이나 여성 등 저소득 계층과 금융소외계층 및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활동을 펼침²⁾
 - 이들 각 기관은 서로 다른 사업모델을 채택하고 있는데, 예를 들어 ‘신나는 조합’은 지역사회 유대강화를 강조하는 반면, ‘사회연대은행’은 소외계층의 창업지원에 중점을 둠
 - 그러나 이들 모두 NGO에 의한 비영리단체로서, 대부분의 자금을 기부에 의존하고 있으며, 높은 대출관련 비용에도 불구하고 낮은 이자율을 부과하는 등 구조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임
 - 특히 최근과 같이 소득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재원 확충의 한계로 인해 지원활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

□ 국내 서민 경제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신용불량자 및 금융소외계층의 추가적인 양산을 막기 위해 자본시장을 활용한 마이크로파이낸스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임

-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자본시장을 활용한 자금 공급원 확보가 대안이 될 수 있음
 - 주요 선진국에서 마이크로파이낸스에 대한 투자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각종 투자기구(Microfinance Investment Vehicles, MIVs)들은 국내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자금 공급원으로 활동 가능
 - MIVs 중 가장 큰 규모는 SRI 펀드로서 전체 투자 규모의 약 50%에 육박하는 자금을 지원함³⁾
 - MIVs는 전체 투자금액의 약 80%를 채권형 상품에 주로 투자하고 있으나, 최근 들어 주식형 상품의 성장률이 증가하는 추세임⁴⁾
- 물론, 저소득 빈곤층 및 금융소외계층 지원의 근본 취지를 상기할 때, 과도한 영리 추구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
 - 하지만 사회적 책임투자나 환경 투자와 더불어 투자수익과 사회공헌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투자처로서 마이크로파이낸스의 관심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
 - 특히 충분한 재원 확충이 이루어지고 지원 대상의 도덕적 해이를 극복한다면 사회안전망으로서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됨

선임연구원 이진호

.....
 2) 각 단체 홈페이지 참고: 신나는 조합(<http://www.joyfulunion.or.kr/home/>), 사회연대은행(<http://www.bss.or.kr/web/>), 아름다운 재단(<https://www.beautifulfund.org/ssl.html>)
 3) 오규택, 박창균, 2007, Microfinance와 자본시장, 한국개발연구원 공동체자본주의 심포지엄 발표자료.
 4) 한국금융연구원, 전계서.